

8/9 주 LT 항공세미나.

8/20/21

-한판-

사무국의 한학기 평가

우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학기가 매우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군요.
지금 이 시간, 이순간만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이에요

-workshop
여성세미나.

다들 한학기 사업에 만족하십니까?

사무국은 사실 딱히 어떤 업무가 있었던 부서가 아니었으므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
다. 그래서, 결국 두서없이 생각나는 글들을 쓰고자 해요.

1. 관계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치단체부터 교수님, 학생들 등
등.. 우선 이번에 여학생처 처장님이 바뀌셨죠? 지난 학기에 여학생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처와도 꽤 좋은 편이었죠. 아! 식사를 한번 같이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군
요. 다음 학기에는 기회를 잘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교수님들과도 전과 같이 돈독한 기회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행히도 다수의 행사에서 프로젝트팀과 함께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접할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도 조금씩 발생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좀더 우리가 치밀하
고 충실하게 사람들과의 일분담과 행사의 진행을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학기에 자치단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자제때도 모반의 소식을 잠시
들었을 뿐이군요. 다음 학기에는 함께하는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 행사

모두들 한학기 행사로 바빴을 것입니다. 확실히 계속적인 행사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들 지치셨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한 행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이번학기에 우리가 했던 행사들 중 약간 아쉬웠던 행사는 개인적으로 ~~바다 배아귀스~~입니다. 작년의 행
사와 너무 많은 부분이 좀 비슷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확
실히 다른 행사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함께 일을 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업무의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
았다고 생각합니다. 휴학생들이 기운을 많이 쏘기도 했구요. 다음 학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요.

3. 고민들

이번 학기가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웬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좀 적었던 것 같고
함께 고민할 시간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학기에는 좀더 많이 총여에 대해 고민하고 더 좋고
알찬 생산물들을 만들어냅시다.

다음학기의 계획

1. 다음학기에 여학생 처장님을 찾아뵙야 겠군요. 학생처와 식사도 한번 합시다.

2. 다음학기에 있을 행사인 여성제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들과 연대를 게울리 하지 맙시다. 함께 멋진
행사를 해야 하겠죠? 아, 그리고 8월 말즈음에 여성주의자의 밤을 한번 마련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
니다.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에 새 집부가 왔습니다. 그 친구와 잘 이야기를 해보고 뭐가 하고 싶은지, 무얼 하면 좋은지 한
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일을 어떻게 분담해 볼건지도요.

→이복현의

이복현의 논의가 있었음.
연예인에게 대한 관심.

-인상정하.

*논의

안전

총무부의 한학기 평가

1. 이번 학기의 초과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학기는 그야말로 파산입니다. 물론 돈이 안남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남아있는 돈이 약 100만원 (조금 안됩니다)+ 학생회비 180만원+ 교한테 받을 돈 약 70만원(67만원 정도)로 전부 약 25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성뿌연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않은 고로 그것을 빼면 약 150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엘티에서 돈을 쓰고나면... 얼마가 남게 될까요. 결국 이 돈에서도 예자제 금액인 42만원 정도를 빼고 나면 1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학기는 확실히 돈을 많이 썼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많이 썼을까?

- 떡수: 돈잡아먹는 귀신입니다. (무려 530만원입니다!)+ 14만원 가량의 밀린 원고비
- 지원금: 이번학기에 유난히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120만원이 넘습니다.)
- 우리 회식과 엘티비: 6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학기는 파산이 되었지요.

다음 학기에는 좀더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2. 광고

다음학기부터 어디에서 광고를 떼게 될지 걱정입니다. 콰노익은 연락이 안되고.. 사실 이제 포기인 상황입니다. 우리 행사중 광고를 떼기 쉬운 행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행사 광고 떼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포기해도 상관없는 영역이지만, 잡지가 만만치 않은 만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음학기는?

우선 다음학기에 떡수가 3번 나올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500.

큰 행사는 두 번 있습니다. 여성제는 얼마짜리 행사가 될지 사실 예상이 되지 않는군요.

페미니즘 강좌의 경우 그리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학기는 아마 이번학기 적자를 메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줄일지 생각해봅시다.

‘여성운동 예산자치 운영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예산자치제를 고민하며

언제부턴가 학생회에서 예산자치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학생회라는 기구 중심이 아니라 비학생회모임 - 자치단체, 여러 위원회, 자발적인 모임 - 에 의해서 운동의 모습들이 다양화되면서, 재정에 대한 학생회의 독점이 문제시됐다. 90년대 후반부터 예산자치제란 이름으로 학내 자치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비학생회가 학생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여성운동 예산자치 운영위원회

학기가 시작되면 예산자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예산 배정한 총여 1명, 여성운동 사업을 하는 모임이나 개인 각 1명씩 참여한다.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을 정회원으로 프로젝트 모임을 준회원으로
준회원은 예산 신청만 할 수 있다. 심의 배정은 정회원이 한다.)
운영위원회 참가는 시기적 제한이 없다.
총여에서 배정한 자치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자체 예산이 된다.
예산에 대한 심의, 배정,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진다.
예산자치제에서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해야만 한다.
사업별 지위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정한다.
학기 후 남은 예산은 다음 운영위원회로 이월된다.
상위의 기구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학내 여성운동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

총여와의 관계 문제

‘여성운동 예산자치 운영위원회’ 이름에 있어서
초기에는 ‘총여학생회 & 여성운동 예산자치 운영위원회’로 사용..
학생회와는 다른 자치 철서 지원/실행 모임으로..

인정

개학 전에 자치모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개학후 총여/운위 이름으로 선전작업(여성제 관련해서 여성학 수업 중심으로)
선생님들에게 협조 요청

※ 2002년 2학기에는 여성제 지위 활동 중심으로

9/5 할간

5

성폭력 사건을 해결/지원하는 과정

반성폭력팀

intro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성폭력 총여학생회라고 이름을 붙인 값을 치르는 것인지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하나가 끝나기가 무섭게 계속 접수되는 사건들..ㅠ_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학내/외에서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묻히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올해 초 접수되었던 법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대로 신고되어 총여학생회로 접수된 법대 사건은, 사실 별 일 아닌 것으로 여겨지 묻혀질 수 있는 일이었다. 이 사건이 처리되고, 공개되면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력만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구도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도 알리는 기회였다.

1. 한 학기 동안 접수된 성폭력 사건

1)법대 사건/2)상대 사건/3)사회대 사건/4)전학협 문화제 사건/5)총학생회 사건(진행중)
-각 사건에 대한 평가.

1)모범사례~;

2)학칙으로 처리된 첫 번째 사례. 학칙의 한계점이나 해결 과정의 지난함 등도 드러나게 된 사건.

3)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줌. 법대 사건 이후 대책위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나 성폭력 사건의 원칙적인 처리를 일깨워준 사건.

4)학내에서 벌어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집단적 성폭력. 하지만 학생 운동 조직 간의 대결구도(?) 비슷하게 흐른 부분도 있었고, 총여 또한 입장 발표(이 또한 내부적으로 완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조직 내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이 해결되는 방향에 따라 드러나지 않지만 만연되어 있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일침을 놓을 수도...

2.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건 해결의 원칙

*피해자 중심주의란?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만나는 과정도 중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가해자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대처

(사회대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은 대부분 대책위가 피해자의 입장만 듣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책위가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면, 가해사 면담을 진행할 때 가해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공문으로 사건 진행 과정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대책위가 처음부터 사건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총여만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 등에 대해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대책위원들도 있게 마련이다.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좀 귀찮더라도 대책위원들이 자주 만나서 치밀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가해자를 만나야 한다면)
왜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인가,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 등을 짚어주고, 가해자들에게도 공문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시작해야 한다.

3. 실제 대책위원회 구성과 사건 대처 방법

*대책위 구성-비상대책위원회, 학적으로 처리되는 대책위원회

*사건 신고->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책위(준)구성->피해자 진술서 접수, 가해자에게 사건 신고 공문 전달(진술서 요청)->대책위(준)에서 정식 대책위 구성->가해자 진술서 접수, 피해자 진술서와 비교하여 사건구성,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대책위 판단에 의해 가해자 면담->피해자와 상의하여 징계 내용 결정->가해자에게 통보, 공개사과문, 사건 공개.

*학생회 단위들로 구성되는 비대위나, 새터내규에 따르는 대책위는 총여(를 포함한 학생 단위)가 자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므로 원칙에 맞게 해결하기가 무척 유리하지만, 그만큼 가해자들에게 '공식적' 압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적다. 가해자들이 대책위를 공식적인 기구로 보고, 심리적 압박이나 강제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

4. 대책위 힘내요!^^

대책위를 진행하다보면 대책위원들이 스스로 많이 힘이 빠지게 된다. 가해자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거나 진행이 더딜 때, 피해자가 힘들어할 때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거나 대책위가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물론 대책위가 지적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해자들이나 주위 상황들로 인해 위축되는 경우들도 많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힘을 돌아주고, 가해자를 계속해서 만나야하며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대책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책위를 진행하면서 서로 힘을 분담해 주는 것,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애쓰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감시자일 뿐이다)는 발상이나 대책위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사고 역시 무척 위험하다. 언제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은 오히려 사건 해결 과정에 도움이 안된다.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대책위나 총여 역시 성폭력 사건을 대하면서 스스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학내에서 성폭력 담론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설블리 삼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많다. 담론을 만들고 싶다면 오히려 자료집 발간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

연성뿌연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새터 내규 실무주체 연석회의(아...재미없는 이름이다;)가 해소되면서 지난 2000년의 연성뿌연의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새터가 끝난 이후로 반성폭력 자료집 발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동제 만들기 등의 사업을 1학기 동안 진행했다.

지금의 연성뿌연이 2000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성자치단체들의 참여보다 각 단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언제나 '여성운동은 참여가 없어서 하는 일'이라고 나몰라라하거나 생색내기 수준으로 그치는 단대의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참여보다는 더 가까워서 얼굴을 맞대고 상황을 더 잘 아는 단대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설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단대의 활동이 있는 반면 여성자치단체들의 참여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예상하는 바대로, 단대의 참여라는 것이 연성뿌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무언가를 이끌어어나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많다. 연성뿌연 모임 자체도 거의 대부분 참여가 제안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자료집 발간도 그랬고, 대동제 사업도 사실 새터 내규를 준비할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만큼 여성자치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모임의 기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참여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1학기 동안 연성뿌연에 대한 참여 내부의 기대나 논의 수준 자체도 '외부 연대회의'의 턱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반성폭력팀 내에서 결정된 일이 참여의 입장이 되기도 했고 사업을 꾸리는 것도 그랬다.

지금처럼 여성자치단체들의 활동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참여 내부에서라도 연성뿌연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새터 내규에 대한 지적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 우리 역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또한 단대별 내규 역시 2학기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반성폭력팀 내에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막대한 부분들도 있고 참여 전체의 논의가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1학기 연성뿌연의 활동에 참여학생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우리 역시 이제까지 쌓여왔던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물들을 더 채워나가기 보다는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쳤다. 2000년에 치열했던 연성뿌연의 활동과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고민이 새터 내규와 학칙으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 초 내규를 보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들부터, 연성뿌연에 같이 제안했던 단대별 내규, 2학기에 가능한 반성폭력 운동 사업들까지 먼저 구상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겠다. 연성뿌연에서 단대별 내규 뿐 아니라 새터 내규 자체를 보강하는 것까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부분은 참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는 판단으로, 참여 내부에서 내규 업그레이드 모임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그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대처해 온 과정이나 대책위 구성, 사건 해결 과정 등에 늘 있어왔던 참여학생회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봄학기 행사와 연대회의의 내용과 평가

by 새움

순서

- 새내기 여성학 학교
- 여성 노동 연대회의 「맷돌 굴리기」
- 2002 May-Day 여/罄
- 성교육 행사 body talks - "내/네 몸에 말 걸기"

새내기 여성학 학교

새내기들에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여성학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여성학 학교가 기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국 봄 학기 평가 글을 참고해주세요

여성 노동 연대회의 「맷돌 굴리기」

14대 총학생회는 노동 사안에 대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보기 위해 마련된 「맷돌 굴리기」 연대회의에 봄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개념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었던 나에게겐 멀고도 먼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 회의에 참여하기 전, 연대 회의 안에서 난 허공을 떠도는 얘기들만을 하지 않을까? 과연 그 안에서 풀어내는 얘기들이 나의 경험과 닿아 있을까? 혹은 여성 노동자 "그분들"이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과 정규직의 그리고 "가족 부양자"로서의 남성 노동자들의 시각이 너무나 농후한 노동 담론들에 대해 난 얼마만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위의 무게에 실려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총여 내부에서 역시 (물론 나를 포함한) 여성이 만드는 노동 담론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시급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난 연대회의에서 풀어낸 내용들을 총여 집행부들과, 나아가서는 연세 대학교 학우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었고, 총여 학생회에서 이 회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맷돌 굴리기에 봄 학기와 여름 방학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 May-Day 여/罄

*맷돌 총회

*여름 방학 세미나

*여성 연대 한판에서 여성 노동 term 준비

-----2002 May-Day 여/罄 이전 사업들엔 총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May-Day 여/罄에 대해선 따로 평가를 하고.....

넷들 총회에 대한 평가를 하면.....

넷들 총회가 2002 May-Day 여/생이 끝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May-Day에서의 여/생 활동에 대한 전체 평가와 캠페인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생 평가에 있어서는, 캠페인로 진행되었던 '여성주의 독자적 흐름'으로 여성노동을 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캠페인로 여성의 기초에 대한 논란(?)-좌파 단위, 특히 전학투위와의 연대 여부-이 있었고 이후 여성 평가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생이 메이데이 때 풀어진 논의는 분명 전학투위 여성행동위의 논의 지점과는 다른 부분들이었고 또한 그들의 논의에서 나아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접근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번 메이데이 여/생의 평가는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여/생 전체 테이블에서 기초에 대한 논의가 참여 단위의 결합 시점 등으로 인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던 점, 연대에 있어 각 단위 상황, 결합 수위 등에 대한 공유가 부족했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학투위와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메이데이 이후 여/생의 활동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전학투위와의 갈등 문제가 확실한 결과를 남지 못하고 미적미적 넘어가 버렸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해방연대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좌파 단위 내 여성주의자들의 흐름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는 현실적 성세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총회 당시의 여성 노동 안에서의 정세과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관련 합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합의문을 통해 비정규노동자를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특수고용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대상화하고 분류화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과 이들에게 부여되는 사회보험 적용 범위, 대상을 단계화 함으로서 노동자들이 다시 세분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 권익의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그네틱스 투쟁 관련하여 가대위 투쟁에 대한 기존의 노동 담론들이 그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대위라는 투쟁 단위가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한 여성억압적 가족구조를 정당화해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대위 투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방학 세미나와 한판 준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름 방학 세미나는 『여성의 역사』 4권의 下권 안에 있는 여성 노동 term과 『밤비 신비』, 그리고 『세계화에 불만 있는 여성』 자료집을 커리로 하여 진행했습니다.

2002 May-Day 여/생

매년 해왔듯이 올해도 May-Day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번 May-Day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 담론 안에서 여성 주의 시작들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내에서 이제까지 보기 드물게 May-Day 기간에 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사실 전 잘 몰라요..지금까지 연대 안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것은 학내에서 PC와 자보전 자료집까지 많은 활동들을 했었지만 정작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둘 수 있었던 May-Day 여/궐 문화제 관엔 단 한 명만이 참여했고,
준비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던 관계로 May-Day 여/궐 연세 활동단이
있지만 May-Day 여/궐과 거의 함께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땀을 흘리기와 May-Day를 참여하면서 사실 자기만의 방에 있는 글의 글이 생각한다.
여기에 붙여도 되나?.....

나는 특히나 '여성' 노동 운동 이었으면 한다.

6.10일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병동성당에 들어가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파업투쟁 320여일.

그 인니, 그 아줌마들은 지칠대로 지쳤다.

하지만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투쟁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녀'들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투쟁하면서도, 어린이집에 두고 온 자식걱정을 해야만 하는 그녀들이기에..

우리는 그녀들은 '알몸수색'으로 알았다.

파업투쟁이 300여일이 다 되어가던 그 시기에 말이다.

'알몸수색'이 부각되지 않았던들

우리가 그녀들의 투쟁을 되돌아보고 연대할 수 있었을까.

현재,

이전에 노동운동에서 상처를 받은 여성주의는

여성 노동자들과 투쟁의 거리에 서고 보수 정치권을 비판하고

계급적 이해와 요구를 내세우는 것에 너무도 조심스러워 한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남/녀, 착한 여자/나쁜 여자, 순결한 여자/아닌 여자의

이분법이 아니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 또한

니희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여성 노동 운동에서 '노동 운동'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 그녀들의 투쟁에 깊이 하지 않고

단지 그녀들이 몸담고 있는 노조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만을 이야기 할 것인가.

그녀들의 생존권이 왔다갔다하는

지금의 순간에서.

나는 특히나

'여성' 노동 운동이었으면 한다.

여성과 노동자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그녀들은

우리의 사상이 '여성'주의이고 우리의 이론이 '여성'학이듯이

그녀들의 위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여성'노동자인 것이다.

여성 주의에서 여성 노동 운동에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요구에 조금 더 귀기울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들의 '가부장성'을 밖에서 비판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함께 하며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61

02-08-09

발신: 포이포이 학술국
수신: 14대 집행부 여배분들

<<학술국 슬직담백한 1학기 평가 + 빠방한 2학기 계획>>

*1학기 살이

1. 세네기 여성학 학교

- 3 일에 걸쳐 진행된 여성학학교~~~~~

첫날 학장시절의 나의 경험이란 주제로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었던 여성학학교는 한 명의 참여자도 없는 관계로 무산되었다.

둘째날 역시 월경을 주제로 진행된 것이었던 세미나도 한명의 참여자도 없는 관계로 무산되었다. 셋째날 모성을 주제로 진행될 것이었던 세미나는 이전 이들 동안의 여성학학교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무산되었었기 때문에 이날 발제자(별)는 여성학학교 전체가 취소되었다고 오인하여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둘째날 발제주제였던 월경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셋째날 우리는 무엇을 했지?

- 셋째날 참여한 12학년 친구는 화장실 신문을 보고 찾아왔다고 한다.

(새삼 화장실 신문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사실 학관 주변에 물려있는 홍보물들을 사회대나 상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볼 기회가 많지 않다.) 이 세미나에서 새로운 발제를 했고, 발제 후에 간이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랑과 훌씨가 함께 참여를 했다.

발제문 outline은

* 들어가면서-최근 생리대 광고에 대한 단상

a. 파스텔톤, 혹은 백색의 배경화면

b. 깨끗하고 청순한 모델 고용 - ex>실제 대학생 모델(정숙하고 지적인 이미지로서의)

* 과학(의학)에서 본 여성의 월경 - "여성의 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참고로

a. 과학적 '은유', 과학의 언어

b. 무엇이 문제인가?

*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 &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 - "여성 방명 정부에 대한 공상"을 중심으로

* 덧붙여 얘기할 거리

생리대,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일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세미나는 활발히 진행 되었지만 유일한 세네기로서 참여한 친구가 7시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아쉽게 일찍 끝났다.

무엇이 문제였지?

- 여성학학교 첫날에 아무 참여자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 홍보 문제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연하게 '만어 불어던 단 한장의 PC홍보, 결코 많은 수가 아닌 동창회자보 (게다가 이번 동창회 자보는 노란 종이로 인해 1년 정도 전에 붙여서 빗바래 변질된 종으로 보였다고 한다 -)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글들에 파문허버릴 수 있는 혹은 아무리 조회수가 많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학내 단체 홈페이지나 YSCEC와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 홍보는 세네기들을 여성학학교로 오게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기상의 문제라고 기획단 내에서 위안으로 삼으려했지만 사실 그렇게 본다면 1년 내내 언제나라도 시기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4월엔 중간고사 5월엔 대동제 6월엔 기말고사 9월엔 학기 초라 또 정신없고, 뭐 이런 식으로...말이다)

만약 다시 여성학학교가 열린다면 어떻게?

- 홍보를 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존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첫째, 사람들이 볼까? (주의를 끌었을까?)

둘째, 만약 봤다면 올까? (행동으로 옮길까?)의 문제가 있었고, 이는 정말 out of control이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예상할 수 없을뿐더러 마냥 놔 놓고 기다려야하는 '아름'이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단대에 있는 각 반에서 3월에 하고 있는 "새내기 학교" 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선배들을 주축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새내기 학교"는 정작 너무 한 거라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에서 이는 뒷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

한 예로, 어떤 반은 "새내기 학교" 할 때 너무 예기거리, 한 거라들이 없어서 서평 좀 읽다가 뒷풀이 장소인 레일제에만 모두가 집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틈새'를 노려 우리가 내용을 제공해주고 같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참여 방식을 바꿔 보는 것이다.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 세미나'를 하는 것이다. 예기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단대의 모든 반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대마다 한번씩 혹은 두번씩 한다면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2. 새내기 대상 세미나 ; 여성학 개론, 여성노동

- 새내기 여성학 학교와 여하우 새로배움터 시기에 찾아왔던 12학년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1:1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학술국의 세미나 진행 방향을 바꾸었다. 그래서 단리가 여성학 개론을, 새우이가 여성노동 세미나를 한 학기동안 진행했다.

1) 여성노동 세미나

- 그다지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새내기 대상 세미나 치고는 커리가 너무 전부했다는 것. 차라리 여성노동 관련 사안이나 이슈 다시보기 등을 녹여내어 진행을 했다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이론중심으로 진행된 세미나의 한계. 「노동과 페미니즘」을 주 커리로 사용했었는데, 새내기들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의 사전지식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 세미나 진행에서 걸리는 부분이었다. (가령 맑스의 이론들...) 일방적인 강연식? 진행이 이루어졌었다. 텍스트를 통한 토론이 아니라, 텍스트 독해 자체에만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소수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점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세미나뿐만 아니라 메이데이와 같은 현장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일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새내기들 개인사정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2) 여성학 개론세미나

- 주 커리는 이후에서 나온 「페미니즘」이었고 여기에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페미니즘사상」을 보조 커리로 사용했다. 개론 세미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었는데, 세미나 자체를 끌고 나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이 세미나가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다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커리들을 보라. —) 커리 자체의 내용들이 새내기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미나 역시도 일방적인 강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 총어에서 새내기 여성학 학교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1학기

여성학 수업 Up-Grade를 향한 우리의 전략 v1.0 - 초벌 논의용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LT를 왔습니다! 일주일 미뤄지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양평에 도착했다니 감개무량하네요...카~^^, 먼저 한 학기 동안 다들 너무나무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덕담 한마디를 건네고...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센 평가와 다음 학기 계획 짜기에 약간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끝까지 마무리 멋지게 해서,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자구요! 기분 좋은 충돌 파이팅!

0. 들어가며 - 무엇이 문제었나?

첫 LT때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여성학-페미니즘'이라는 소재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학우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학술국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한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페미니즘이란 발히기가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유독 여성운동의 기반이 되는 '여성학-페미니즘'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어찌 보면 학술국의 활동은 총여학생회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술국의 활동은 다른 사업들이 얻어내었던 성과에 비해 가지저으로 드러나는 성과물이 거의 없었다. 학술국의 평가 문서에도 드러났지만, 새내기 여성학 학교나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성학 세미나들은 가능성만을 남겨둔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학술국 내부의 판단은 소수일지라도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집중력 있게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바로 여성학 수업이라는 것이 학술국의 생각이다.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기본적으로 여성학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학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여성학 수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여성학 수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1. 여성학 수업 Up-Grade?

여성학 수업의 Up-Grade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보완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다. 전자의 경우는 지난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강생들이 원하는 여성학 수업으로의 변화와 신설, 그리고 '제대로 된'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은 여성학 수업을 만들고자 했던 지난 12, 13대 총여의 활동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후자는 간단히 말해 현재 분산되어있는 여성학 수업 개설 부서들을 통합하여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1) 내용적 측면에서의 보완은, 지난 총여의 활동을 돌이켜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수업내용과 수강생들의 반응에 대한 실사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담당 선생님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총여의 이러한 작업을 수업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간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 또한 있었다. 더구나 수업에 대해 별다른 권한을 갖지 못한 강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선행 총여의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든가 실제로 수업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여성학 수업 Up-Grade는, 물론 지속적인 담당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기대한 것만큼의 실효성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

여성제 전반적인 얘기

성격

내용

참여

총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형식과 내용)

여성제

행사기간

여성제 행사 기간으로 연고전 기간과 연고전 다음주가 가능

I.

연고전 기간에 안티 연고전과 함께 여성제를 개최하는 것
운동회가 아닌 대안 축제로서 여성제를 개최한다.

문제점

연고전 기간에는 학교 전체가 혼란스러움, 이속에서 여성제가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행사자체를 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있는지 혹은 함께 안티연고전을 구성할 모임의 존재 유무

월드컵의 영향으로 응원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도.

행사 참여 저조의 문제 발생 가능(특히 페미니즘 강좌의 경우)

II.

이전의 여성제와 같이 연고전 다음주를 행사기간으로..

연고전이 끝난 빈자리를 파고든다.

연고전 기간을 행사 준비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좀더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2, 13대 총여에서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의 결과물을 구체화시키려고 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던 가장 큰 이유는 수업 개설권의 분산에 있었다. 현재 우리학교에 개설되어있는 여성학 수업들은 사회학과와 여학생처로 그 개설부처가 나뉘어져있다. 그리고 학기 시작 전 다음학기 여성학 수업 진행에 앞선 사전 모임을 한차례 정도는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미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업 개설과 담당자 매정이 끝나기 때문에 방학중에 갖는 이 모임에서 별다른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가가의 수업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특히 새로운 수업 개설에 대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 별로 개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설되어있는 여성학 수업 전체와의 조율 속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일원화 된 창구가 있을 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좀더 용이해질 것이다. (서울 시립대의 예를 참고하자)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분산되어있는 여성학 수업의 개설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학 수업에 대한 총여의 의견 개진이나, 학우들의 의견 반영새로운 수업 개설이나 강사교체 등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학 수업과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활동 폭을 보다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 한 학기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수업 조 모임들과의 공동행사 주최를 생각해보자. 이들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뿐만 아니라, 총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 폭을 넓혀나가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2.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나 당장 현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수업 개설권의 문제는 각 과나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인종의 '권력'이기 때문에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2학기는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14대 자체의 사업을 진행하기에 그다지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다. 당장 내년 첫 학기 때부터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 1)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12, 13대의 수업 모니터링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내에서 여성학 수업이 어떻게 개설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한다.
- 2) 논리를 만들어야한다.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진행되어왔던 여성학 수업 개설인데, 왜 현 시점에서 굳이 관련 부처를 단일화 시켜야하는 지에 대한 나름의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또한 어디서 개설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3) 여성학 연계전공의 개설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는 여학생처와의 논의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이는 내년 총여의 몫이 될 화력이 높은데-학교측과의 협상(?)을 통해 부처통합, 여성학 연계전공 개설 등의 의견을 개진해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로부터 가장 실효성 있게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자리는 '준부'의 시기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시기에 총여학생회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정리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 시기에.

3. LT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초별 논의가 우선 이루어졌으면 한다.

- 1) 현재의 여성학 수업에 대한 14대 총여의 생각과, Up-Grade의 방식은 어떠해야하는가?
- 2) 여성학 수업의 관련 부처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여성학 연계전공의 개설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생각은?

(7) 여성노동 문제 ; 뱀꽃양 제작진 분들

- 뱀꽃양을 텍스트로 여성 노동권,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논의 진행. 성별분업의 문제 etc.

→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여성학' 수업시간과 연계

(8) 여성문화 ; 페미니스트가수 지현, WWW 초대 토크쇼?

- 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게 된 경험 등을 어렵지 않게 풀어내면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지반을 넓히는 기회가 될 듯. 입문 성격의 강좌가 될 수 있을지도.

- 더불어 여성들이 하는 음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성문화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 듯.

→ '여성커리어와 리더십'

(9) 여성과 공간

- 여성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 공간 속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여학생휴게실, 부엌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

2) 형식

- 형식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필요. 일방적인 질의 응답식의 강연, 강좌 형태가 아니라... 논지방에서 개최? 차와 함께 하는 페미니즘 강좌.

- 여성제 기간에 병행개최. 그러나 총여는 페미니즘 강좌와 실무 진행에 주력하고, 여성제의 다른 행사의 경우 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도록.

3) 시기와 일정

- 연고제 직전 주 혹은 연고제 기간에 안티 연고제의 의미로 개최하는 것도 의미 있을 듯.